

## 평화드림5만리 평화 투어후기 - 평화를 향한 MZ 세대, 그대들은 희망이다

익숙하지만 어려운 “평화”라는 장엄하고 막연한 주제의 순례가 유럽 땅에서 대학생들 손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걱정되면서도 기대가 많았다. 감신, 협성, 신학대뿐 아니라 일반대 대학생까지 20여명의 학부생, 대학원생들 그리고 10여명의 목사, 교수, 장로들로 꾸려진 스태프들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통해 준비한다고 했지만 평화라는 서사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잡아 나가야 할지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막막했다. 각 도시의 광장에서 버스킹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찬양곡들은 수개월 연습했지만 좀처럼 입에 붙지 않았다.

평화드림5만리는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이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주최하였던 행사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2일간 “힘과 평화”, “평화의 현장에서 평화를 외치다”, “평화통일과 시민단체”,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 체코 프라하, 폴란드 아우슈비츠,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 분단의 아픔을 겪었거나 평화를 잃고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찾아 평화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순례 프로그램이었다. 행사명 <평화드림5만리>는 한국에서 출발해 탐방지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총 연장 길이를 뜻한다.

사실 MZ세대인 20대 초반 학부생들과 30대가 대부분인 스태프들은 전쟁 혹은 분단을 직접 겪은 세대로부터 3-4세대 후손이기에 평화라는 상태를 강제로 박탈당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지구인들과 함께 연대해야 하는 중요한 미래의 주역들이기에(물론 처음에는, 그 무게와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온 청년들도 있었다) 이번 순례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중요성과 가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화를 이를 당사자로서의 다짐과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순례를 시작했다.

긴 비행시간을 지나 도착한 암스테르담에서 첫날 아침부터 도선생이 팀을 반겼다. 팀이 묵던 호텔 조식당에 나타나 조식 줄에 섞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 척, 당당히 팀원 두 명의 신분증과 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훑쳐간 도둑 덕에 네덜란드 경찰과 긴 미팅을 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였다. 덕분에 5만리팀의 여정은 오직 주님께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탄치만은 않은 시작을 하였다. 하지만 5만리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예정대로 탐방했다. 이준 열사의 삶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통해 조선 독립을 향한 열정과 자유와 평화를 열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바람을 엄숙하고 선명하게 가슴에 새긴 다음, 의미 있는 첫 일정을 버스킹과 서명운동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어 10개 도시에서의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다.

각각의 도시에서 체류시간은 짧았지만 우리는 중심 광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버스킹도 하고 평화 지지 서명도 받고 역사적 평화의 상징 혹은 분쟁과 갈등의 상징들을 방문하고 공부하며 이 여정들의 주제인 ‘평화’를 시간시간 가슴 속에서, 머리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언어의 장벽에 막혀 당황도 하고 매몰찬 거절에 마음 상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에 창문도 열리지 않는 버스 에어컨 고장으로 죽을 것 같은 찜통 더위를 견뎌내며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해 졌던 8시간도 잊지 못할 것이

다. 만 2일 만에 에어컨이 고쳐져서 큰 기쁨과 감사를 모두 온 몸으로 주께 표현하고, 한 맘으로 찬양했고 다시 다음 도시에 가서 말은 안 통해도 눈빛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며 울컥하고 다짐하고. 한국 땅과 다른 공기, 다른 건축, 다른 도시, 다른 공간 들에서 다양한 삶들을 관찰하고, 각국의 전통, 음식, 교통, 교회 모습, 언어 등을 경험하며,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었다. 다양성은 평화의 토대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길임을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특하고 핫한 5만리 K-MZ 청년들은 발랄하고 성실하게 각 나라의 다양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에게 도전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이 순례에 참여한 MZ 청년들은 평화를 위한 인류의 연대와 상호 의존성을 배웠다. 다양한 사람들 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기 시작했다. 인류의 연대가 평화의 씨앗을 심고 키워가는 것을 목격하며, 지구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얻었다. 특히나 분단 78년째를 맞는 한국의 MZ 청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책임감이다.

5만리팀의 버스킹 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찬양을 우크라이나어로 부를 때면 (각 도시의 외곽 진입지역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교통체증 동안 버스안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찬양 외우기 대회를 열며 이겨냈다!!)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 함께 찬양을 하고 사진 찍고 고마움을 전하며 힘껏 안아주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서 오히려 우리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서명을 부탁하며 어색하고 쑥스러운 순간, 평화의 메시지를 적은, 하얀색 볼펜 선물이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서로, 손을 내밀어 맞잡고, 눈으로 혹은 주먹으로 서로 파이팅 인사하는 작은 행동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행함이 모여 큰 평화의 파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 MZ 청년들 사이에 반짝였다. 인천에서부터 각자의 집에 하나라도 빠질까 조심조심 넣어 가지고 온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한 미술용품, 악기, 화상 환자들을 위한 약품들, 생존 키트들을 루트를 통해 전달했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했다.

한반도와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다 통일된 독일 베를린 장벽의 처연함은 한국의 분단을 현실로 인식시켜주었고 오시비엔침 수용소와 유대인 박물관, 유대인 추모 기념 조형물, 그리고 유럽 전역에 남겨진 인종 학살의 희생자들의 수많은 자취들은 인간이 스스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시대적, 사회적 악이라는 거대한 압력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서는 불가능하다는 귀중한 배움도 얻었다.

체코 안 후스, 독일 루터의 종교 개혁 현장 탐방은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예 가능하지 않다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평화는 크리스천으로서 추구해야 할 근본이며 필수적인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5만리 팀 모두에게 알게 하셨다. 평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인류 모두가 갈망하는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에서 태어나

이 땅과 세계에 평화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할 크리스천 MZ청년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방향과 소명을 대장정을 통해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정을 예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신 은희곤 목사님과 우경희 사모님 이하,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여정을 이끌고 뛰어주신 어른들께도 큰 감사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

뜨거운 더위와 땀별에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를 배우기 시작한 평화드림 5만리, MZ 청년들. 그들의 기도와 열심, 배움, 행함으로 이 땅의 DMZ가 사라지고 부산에서 백두산을 지나 시베리아를 통과하여 베를린에 도착하는 평화의 철도가 놓일 것을 믿고 소망한다.

- 함께 하여 행복했던 노(老)전도사 J -